



개별 주식 선물 시장(요약)

1. 개별 주식선물 시장 현황

- 개별 주식 선물의 기초자산은 146개 종목으로 이들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70% 수준. 시장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 주식 선물의 기초자산이라고 볼 수 있음
-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의 거래대금 비중 높게 나타남. 2020년 기준 삼성전자 주식 선물 거래대금 비중은 30%, 2021년에는 24.5% 기록

2. 시장 주도주들의 현선비율 높게 나타남

- 현물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인 현선 비율은 시장 주도주에서 높게 나타남. 2021년 평균 기준으로 27개 종목들이 현선비율 40%를 상회했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이노텍, NAVER, SK이노베이션 등 5개 종목의 현선비율이 70%를 넘었음
- 2021년 평균으로 외국인 비중이 53.4%이고 개인 15.7%, 기관 29.4% 기록. 2020년 초 이후로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비중은 점차로 줄어듦

3. 이론가 괴리를 낮은 종목들 만기 충격 존재

- 1월 만기 이후 2월 만기까지 이론가 괴리율 합계가 -10%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8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7개 종목들이 마감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고, GS건설은 2% 이상 상승하기도 했음
- 2월 만기일 이후 6거래일 간 이론가 괴리율 합계치가 -5%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메디톡스,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하나투어 등으로 3월 만기 동시호가에 상승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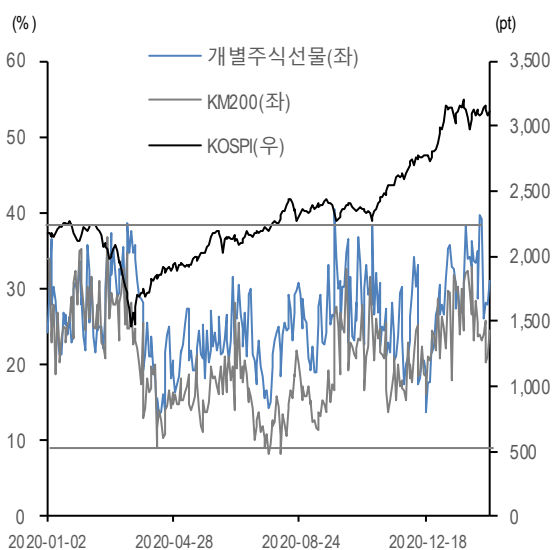
1. 개별 주식선물 시장 현황

개별 주식 선물 시장은 146개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선물 시장이다. 이들 146개 종목들 중 124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속해 있고, 22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 개별 주식 선물의 기초자산인 146개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합계의 70%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 시장 주요종목들이 개별 주식 선물의 기초자산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주식 선물은 특히 작년 3월 코스피 급락 이후로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개별 주식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공매도 금지 국면에서 특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주식 선물에서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 선물로 2020년에는 30%, 2021년에는 24.5%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화학, 현대차 순으로 거래대금 비중이 높았고, 이들의 합계가 약 50%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현대차 7.3%, SK 이노베이션 6.6%, 기아차 5.9%를 기록하는 등 기초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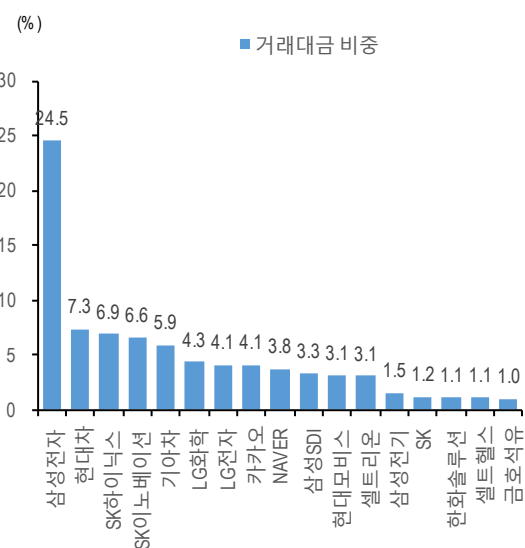
시장전체적으로 볼 때, 코스피의 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커지는 등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 흐름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1]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후 코스피 대비 개별주식 선물 거래대금 비중이 점차로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2021년 거래대금 비중, 삼성전자가 24.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 시장 주도주들의 거래대금 비중 높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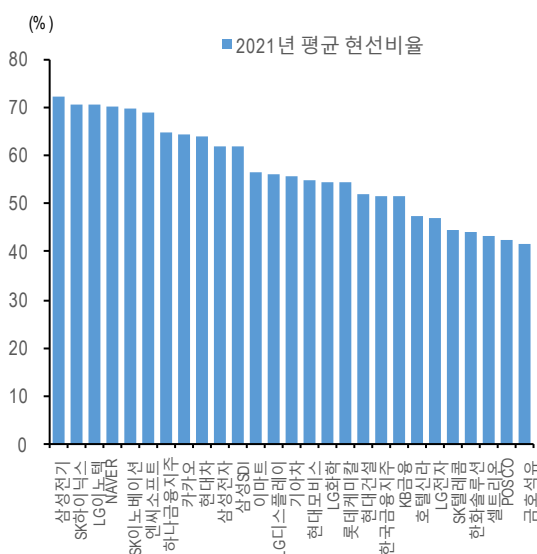
2. 시장 주도주들의 현선비율 높게 나타남

현선비율은 현물대비 선물의 거래대금 비율로 개별 주식 선물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된다. 현선비율이 100%라는 의미는 현물 거래대금과 선물 거래대금이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차트3]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평균 기준으로 27개 종목들이 현선비율 40%를 상회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NAVER, SK 이노베이션 등 5개 종목의 현선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들 현선비율 상위 종목들은 1,2월 상승 과정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로 시장 상승 과정에서는 주도주들의 현선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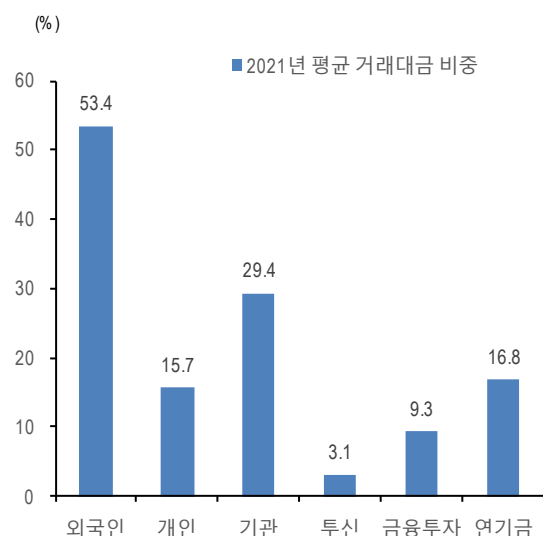
투자 주체별 매매동향을 볼 때, 2021년 평균으로 외국인 비중이 53.4%이고 개인 15.7%, 기관 29.4%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초 이후로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비중은 점차로 줄어드는 모양이다. 개별주식 선물의 거래대금 증가는 외국인 참여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기관 중 연기금은 16.8%, 금융투자 9.3%의 거래 비중을 기록했지만 이들 주체는 주로 차익거래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투신은 매수관점의 포지션을 운용하고 있다.

[차트3] 2021년 평균 현선비율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의 현선비율 높게 나타남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외국인 투자자들의 2021년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3.4%로 절반 넘는 모습. 기관 29.4%, 개인 15.7% 기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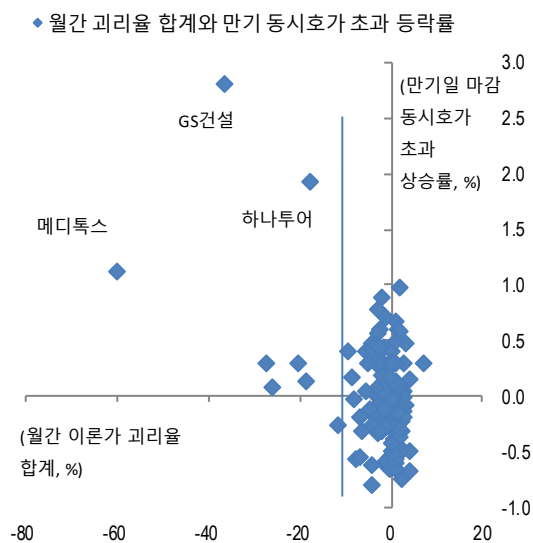
3. 이론가 괴리율 낮은 종목들 만기 충격 존재

KOSPI200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로 시장 베이스가 백워데이션을 기록하는 등 베이스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서도 시장 베이스가 주로 백워데이션을 기록하면서 변동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종목에 따라 베이스 흐름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현선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백워데이션 폭이 크지 않았지만 현선비율이 높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베이스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종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차트5]는 1월 만기에서 2월 만기까지 종목별 이론가 괴리율의 합계와 마감 동시호가의 수익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론가 괴리율 합계가 -10%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8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7개 종목들이 마감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고, GS건설은 2%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올해 1월물과 작년 11, 12월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양이 관찰되어 베이스 수준이 꾸준히 낮게 형성되면 매도차익거래의 대상이 되고 만기일 마감 동시호가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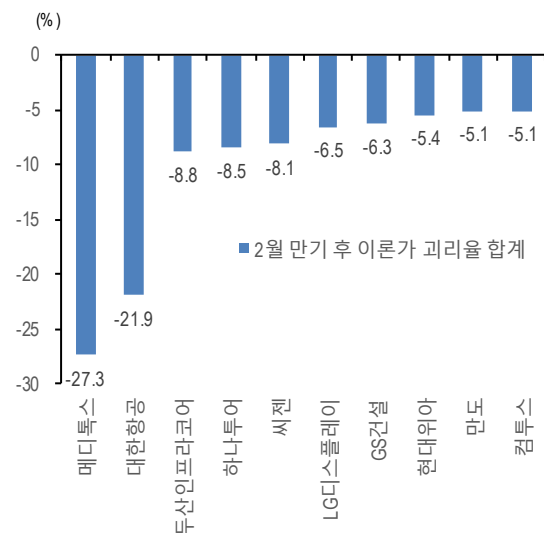
2월 만기일 이후 6거래일 간 이론가 괴리율 합계치가 -5%를 하회하는 종목들을 [차트6]에 표시했다. 특히 메디톡스,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하나투어 등의 괴리율이 낮게 나타나 3월 만기 동시호가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차트5] 2월 만기에 이론가 괴리율 합계가 -10%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마감 동시호가에 상승하는 모습 보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2월 만기 후 이론가 괴리율 합계. 만기까지 괴리율 낮은 종목일수록 마감 동시호가 매수세 유입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